장바구니로 지구를 살립시다

불자주부 환경파수 최선

'환경모임' 창립 교육·계몽 등에 단체들 앞장

포장지 줄이기·합성세제 안쓰기 캠페인 전개

불자주부들이 환경운동에 나섰다.

'장바구니가 환경을 살립니다' 부엌에서 부터 환경을 지켜나가자는 불자주부들의 서원이 담긴 장바구니 1천여개가 지난 17일 조계사 앞에서 무료로 배포돼 이목을 집중시켰다.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의 주부 '환경모임'이 창립과 함께 몸소 실행에 옮긴 작은 환경운동의 첫발이었다.

이처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불자주부들이 나섰다.

시장바구니를 들어 불필요한 포장 없애기, 음식은 먹고 남기지 않을 정도만 장만하기, 합성세제 안쓰기, 유원지에서 쓰레기 모아 가져오기, 비닐랩과 알루미늄호일 종이 기저귀 등 1회용품도 조금만 성의를 보이면 안 쓸 수 있다는 것이 불자주부들이 생활경험을 통해 제안하는 환경수칙들이다.

맑고향기롭게 운동본부(본부장 윤청광)도 올해들어 환경세제 판매, 시장바구니제작 보급, 연꽃스티커 무료배포 등의 활동을 시작해 불자주부들이 생활속에서 스스로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하는 계몽운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23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불교자원봉사연합회(회장 성덕)의 제2회 자원봉사시민대학 '환경교육'에도 많은 불자주부들이 참여하고 있어 환경보호와 운동에 대한 불자주부들의 열의를 짐작하게 한다. 오는 6월까지 계속되는 환경교육을 수료하고나면 불자주부들은 환경운동가로서 환경보호의 현장에서 환경전문봉사활동을 하게된다.

이와함께 또다른 환경운동의 대안으로써 부천 석왕사(주지 영담) 생활협동조합이 지난 8일부터 문을 열어 무분별하게 수입·판매되고 있는 수입농산물 대신 유기 농산지와 직접 연결, 우리농산물을 전시 판매해 우리농촌과 우리 환경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공해없는 깨끗한 세상을 물려주어 편안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이들 불자주부들이 환경운동에 임하는 가장 큰 목적이다.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을 보전하기위해 주부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생활 곳곳에 널려있다는 것이 이들 불자주부들의 한결같은 말이다.

이처럼 불자주부들이 각자 자기집에서 쓰레기를 줄이고 분리하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 주변의 환경문제를 함께 해결하기위해 움직이고 있어 바람직한 불교신행활동의 모델을 제시해 주고 있다.

〈온〉

◇부엌에서부터 환경보호를 실천하자는 경불련 '환경모임'의 장바구니 나눠주기 캠페인이 지난 17일 조계사에서 열렸다.

경불련 「환경모임」운영위원장 박종애 보살

오계실천 환경운동 '만점'

'살생하지 말라'는 불살생계의 부처님 말씀을 환경운동으로 새롭게 깨달았다는 박종애보살.

지난해 10월부터 6차례의 준비모임을 거쳐 운영위원 5명을 비롯 불자주부회원 40명과 뜻을 모아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의 주부 '환경모임'을 창립하고 운영위원장의 소임을 맡으며 환경운동에 뛰어들었다.

"주부들만이 환경을 살릴 수 있다는 신념으로 환경운동에 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녀는"집안살림을 꾸리듯이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불교시민운동으로서의 환경운동을 전개해 여성의 역할과 권위를 신장시키겠다"는 굳은 의지를 표명했다.

기존의 기복적인 신행활동에서 탈피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적으로 행하는 한 차원 높은 신행활동을 환경운동을 통해 펼쳐보이겠다는 그녀는 "성실한 환경운동으로 불교를 일반인들에게까지 새롭게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지난 17일 조계사앞에서 장바구니 나눠주기 캠페인을 시작으로 활동에 들어간 경불련 주부 '환경모임'은 앞으로 무공해 비누 제작 판매와 부산 광주 등 각 시·도를 대상으로 한 장바구니 캠페인을 실시해 주부들이 환경운동의 주체로 나서도록 계몽할 예정이며 1달에 1회 등산을 통해 쓰레기를 수거하며 회원들과 함께 월례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사찰내 환경모임과 환경학교 개설을 적극 권장하고 합성세제 안쓰기 등을 통해 생명존중의 관점에서 환경문제를 해결하자는 실천방안 연구와 노력을 이어가게 된다.

"신심 넘치는 회원들과 함께 현장에서 살아움직이는 실천적인 환경운동을 보여주겠다"며 각오를 다지는 박종애운영위원장은 보다 많은 주부불자들의 참여와 후원을 호소했다. (02)997-1642

〈이은자 기자〉

만화

法법 句구 經경

* 어리석음의 장 *
지쳐있는
나그네에게는
지척도 천리

이 향 원

이근후 건강칼럼 <20>

음식섭취

'건강식이 만병통치'라는 생각 금물…고른 섭생을

"좋다는 건강식만 먹는데 왜 이럴까요…." 부인은 자신의 병이 빈혈임을 강조하고 무지런히 건강식만을 해오는데도 증상이 좋아지질 않으니 왠일인가 하고 물었다.

눈꺼풀을 재껴 보았다, 혈액검사는 하지 않고 가장 쉽게 빈혈임을 알 수 있는 방법이다. 건강한 사람은 핏발이 선명하다. 빈혈이 있는 사람은 핏기가 없거나, 심하면 파리하기까지 한다. 혈액검사를 할 것도 없이 빈혈임이 명백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몸에 좋은 것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소위 건강식품이란 이름으로 선전도 많이 하지만 여기에 무조건 혹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다. 백유경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과 소금'이라는 우화가 나온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음식에 소금을 넣어 먹으니 음식맛이 좋았음으로 음식은 빼버리고 소금만 먹으면 얼마나 맛이 있을까 하고 소금만 먹다가 병이났다는 이야기다. 건강식품도 같은 어리석음다. 건강식품만 먹는다고 한 그 부인은 되레 빈혈을 악화시켜 놓고 있다, 흔히 요즈음 젊은 세대들은 자신의 몸매를 유지(?) 하기 위해 다이어트라는 것을 하는데 안먹는 것을 다이어트라고 잘못 생각하는 것같다. 다이어트는 음식을 골고루 먹는다는 뜻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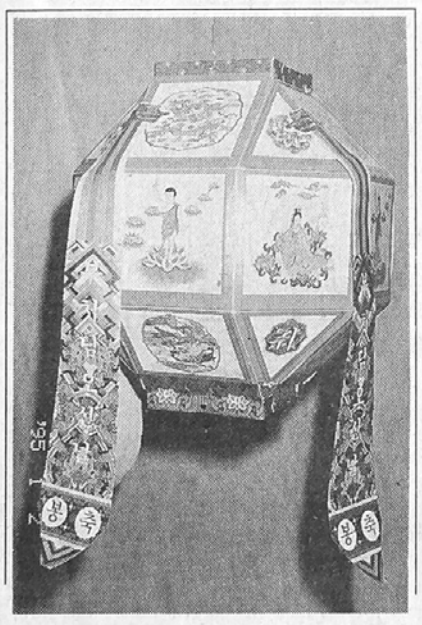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건강수칙 10가지 가운데 첫째를 '음식을 올바르게 먹으라'는 지침을 주고 있다.

백유경의 소금을 비유한 가르침과 같은 뜻이다. 올바르게 먹기를 권장한 것은 소금이 좋다고 소금만 먹는 어리석음을 일깨워 주는 지침이다.

마음의 평안이 없고 안정되어 있지 못한 사람들 일수록 건강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어리석은 사람이 소금을 먹듯이.

홍 법 팔 각 등

풀칠이 필요 없는 팔각등



■ 조립이 편리한 등
—풀칠 없이 2분 완성

■ 전통의 단청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디자인

■ 행사 수일 전부터 봉축 분위기 장엄
—특수 이중합지 방식
—이슬 방지 처리

■ 운반 및 보관 편리
—재사용 가능

■ 경제적인 가격
—650원 (1개당)

■ 봉축행사용품 일체
—만불기, 다라니, 연잎, 초 리본, 등표

■ 구입처 : 홍법등 판매총판
■ 전 화 : (02) 763-5214
742-0085

※ 전국 어디서나 주문시 신속공급합니다.

해동불교대학 통신 수강생 모 집

법사(法師) 과정

고졸 학력 이상의 불자로서 신심이 돈독하고 불교 포교에 뜻이 있는 자. 20세 이상의 남녀. 통신교재와 테이프로 공부하며 본인의 능력과 노력 여하에 따라 단기간 내에 과정을 수료하여 법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삼장법사(三藏法師) 과정

대졸 학력 이상의 불자로서 불교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고 불교 포교에 뜻이 있는 자. 포교원 또는 암자를 설립 운영하실 분으로 불교지도자로서 자질에 손색이 없는 25세 이상의 남녀 불자. 통신교재와 테이프로 공부하며 본인의 실력과 노력에 따라 단기간 내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불교의식 과정

조석예불, 불공시식, 49재, 다비식에 이르기까지 완전 기초부터 통신으로 가능하도록 준비되어 있으며, 남녀 승속 불문하고 누구나 통신 수강할 수 있음.

※ 본 대학에서는 87년부터 94년까지 우리나라의 권위 있는 불교 관계 교수님과 석학승려들의 강의 내용을 전부 녹음하여 보관하고 있는 바, 통신으로 공부해도 강의실에서 강의를 듣는 것과 똑같이 테이프와 통신 교재로 강의수업을 받기 때문에 똑같은 교육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통신 과정 수업은 시간·장소에 구애를 받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이며, 지금은 타계하셨거나 은퇴하신 원로 교수님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본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법사나 삼장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화·서신 주시면 자세한 안내서·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수시 입학 가능■

海東佛教大學 학장 장이두 대학원장 김지견

문의처 110-320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110 경한빌딩 2층 해동불교대학 교무처 전화:741-0495~6 / 팩스:763-4603

교직자 양성전문교육

제14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 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 사물(목탁, 태징, 요령, 법고)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 업 반 :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 작법(나비춤) 등
■모집인원 : ○○명
■교육기간 : 3개월(각과정)
■구비서류 : 본 대학 소정원서 사진 1매
■원서접수 : 1995년 3월15일~4월15일까지
■개강일시 : 1995년 4월17일 오후5시 정각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 수료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 제공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함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110번지
탑골공원뒤 허리우드극장에서 종묘방향
구산빌딩 앞 경한빌딩 2층
☎741-0495~6 FAX:763-4603

海東佛教大學
儀式教育院

學 長 張二斗
院 長 鄭大隆